

# GULF KOREAN TIMES

www.GulfKoreanTimes.com

1월 넷째주 | 28호 | info@gulfkoreantimes.com

January 26 - February 1 2012

3

## 컨텐츠

## Contents

### 독자코너

'울지마, 톤즈'를 보고,

몇몇 지인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던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를 최근에야 보게 되었다. '울지마, 톤즈'는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가까이 친구가 되고, 의사가 되어주고, 선생님이 되어준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배우고 간다고 말하며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엮어 만든 영화다. 한국에서도 개봉을 했었고, 최근 이탈리아 교황청에서도 상영이 되었다. 그만큼 그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하나같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지만, 막상 다 보고 난 뒤에 나는 차마 쉽게 울 수가 없었다. 눈물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에 내리 앉았기 때문이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흑 누군가는 당장 아프리카로 떠날 것이고, 흑은 누군가는 신부님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다. 나처럼 주어진 현실을 탓하면서 바로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정작 신부님이 책이나 영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그저 메마르고 비틀어진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꽃 한 송이 피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이 다였을지도 모른다. 이기적이고 흑독한 이 땅에서 남을 위해 물어주고, 고덕여 주고,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작은 일에도 인색하기 마련이니까...

이 영화를 본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이렇게 울림을 주는 꽃 한송이가 피기를 바라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이가

###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재미있는 소식이나 사진을 기다립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휴대전화 충전 카드(100디람)를 보내드립니다. event@gulfkoreantimes.com

### 인터뷰 - 이사람

## 단돈 300불 들고 날아간 미국, 그곳에서 일구어낸 값진 성공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장 남문기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LA 한인회장, 세계 독도사랑 총연맹 총재, 뉴스타 부동산 대표, 미래은행 이사장 등 다양한 직함을 자랑하는 남문기 회장.

그를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은 무엇인지, 가치관, 철학은 무엇인지 듣기 위해 그를 직접 만났다.

시원스런 웃음과 활기찬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묻어난다. 허황된 자만이 아니라 맨손으로 성공을 일구어낸 이에게서 볼 수 있는 진정한 확신과 당당함이 느껴지는 목소리다. 그가 하나하나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풀어냈다.

1982년 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미국에 갔다. 형편이 넉넉치 않았기에 단돈 300불만 들고 갔단다.

청소 일부터 시작해 부동산 회사 대표가 되기까지 성실성 하나로 밀어부쳤다. 그가 맨손으로 이루어낸 부동산 회사는 현재 50여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매출이 3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회사로 성장했다. 어떻게 이만큼 비약적인 성공을 일구어 낼 수 있었을까.

**"일에 미쳐라!" 이것이 그가 말한 성공의 핵심 비결이다.**

일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나가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해외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엔 더더욱 사명감을 띠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은 해외 동포 사회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한 명 한 명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을 꿈꾸는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조언을 하자면, 꿈에 대한 집착력을 갖고 어느 정도 욕심도 갖고 살라고 말한다. 과욕은 금물이라고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지식을 많이 쌓아야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쌓으라고도 조언했다.

현재 남문기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타 부동산 회사에서 설립한 뉴스타 부동산 학교 학생 100명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은 학생 수가 1,000여명에 달한다고 말하며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 가진 사람이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때도, 자신이 받은 혜택을 10명 이상에게 되돌려주기를 당부한다고 한다. 그가 말한 성공의 원리들은 그를 성공에 이르게 해준 것들이기에, 그가 직접 경험한 원리들이기에 그의 말과 눈빛에서 확신이 느껴졌다. 앞으로도 그의 뜨거운 열정과 지혜를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고, 또한 그의 열정이 주변까지 퍼져나가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를 기대해본다.

취재: 피터 양(peteryang@gulfkoreantimes.com)

### 4 국제뉴스

'흑룡의해' 아시아에 부는 '드래곤 베이비 붐' 美연구팀, "페이스북은 우리를 더 슬프게 해"

### 5 걸프뉴스

GCC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바레인

### 12-13

중동에서 한 인기하는 크리켓 집중탐구!

### 14 한국뉴스

결혼준비에 수억원 '허리 휘는' 결혼문화 왜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률 급증 항공권, 이것이 궁극하다!

### 16 스포츠/연예

'나는 기부왕'...김장훈부터 이효리까지 양준혁, 강병규와 트위터 설전 왜? 홍명보號 '금의환향'...韓킹스컵 10번째 우승

### 18 라이프 스타일

업체탐방(30)-두바이알바디아 건강칼럼-허리통증, 사소한 습관이 문제? 여행-Awesome Blue Hole Ask Hurry-아랍에미레이트에서 사업 시작하기 그 두번째 이야기

### 22 생활정보

부동산 정보-애완동물 키우기 좋은 거주지(1) 한인업체리스트 생활광고

광고문의 (for advertising enquiries)

advertising@gulfkoreantimes.com

+971.50.304.6296